

# 에너지 한숨 돌렸다… “UAE, 한국 최우선 원유 공급 약속”

총 2400만배럴 원유 공급 받기로  
공급망 차질 대비 장기적 협력 추진  
UAE·韓 선박 통해 원유 순차 도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급받은 600만배럴에 추가적으로 1800만배럴 공급을 약속받으면서, UAE 측으로부터 총 2400만배럴의 원유를 공급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극비 방문하고 돌아온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



강훈식 비서실장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활동 관련 UAE 방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총장,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CEO인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 부 장관을 만나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다양한 공급선을 통해 총 1800만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배럴을 공급하고, 우리나라 국적선 6척을 통해 추가 1200만배럴을 공급한다. 강 실장은 “앞

서 공급받은 600만배럴을 더하면 총 2400만배럴을 UAE에서 긴급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양국은 단기적인 수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수급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간 원유 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MOU(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였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에너지 분야 합의는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사 파견에서 강 실장은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UAE의 전세계 지원 등으로 현지서 머물던 단기 체류자 약 3500명 가운데 3000명이 귀국했다. 현재 UAE에 체류하고 있

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한다.

강 실장은 원유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UAE에) 도착한 아침에도 원유를 공급하는 배가 타격을 받았다.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다.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면서도 “복구되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실어서 보낸다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어 “지금 원유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는 것과 대한민국이 적어도 원유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UAE 방문 도중 방산 수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중동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방어무기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사안(원유 공급)과 방산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대구지역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시장 경선 관련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 앞부터 강대식, 김수수, 김위상, 이인선 의원. /뉴시스

## 대구시장 ‘컷오프설’에 국힘 갈등 고조

이정현 “중진들, 후배 길 열어줘야”  
갈등 커지자 대구 의원들 지도부 면담  
공관위, 당내 여론 고려해 공천 결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컷오프(공천 배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엔 현역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된 것을 시작으로 박준호 부산시장 ‘컷오프설’이 나오더니, 이제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 지역에 출마한 중진 국회의원을 모두 컷오프 시키겠다고 나서면서 당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구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중진 의원들을 향해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평생 공직과 정치를 하며 충분히 많은 기회를 누린 분들이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어야 할 때 오히려 자리를 더 움켜쥐려 한다면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고 직격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당 일각에서 새어나온 ‘현역 중진 컷오프설’을 사실상 긍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내에서는 공관위가 이진숙 전 방송통

신위원장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결합하는 구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주호영(6선)·윤재욱(4선)·추경호(3선) 등 중진 의원들이 극렬히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전날 이 위원장을 겨냥해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이 언제부터 공관위원장 개인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나”라고 적었다. 또 한 방송에선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려는 건 해당 행위다. 대구시장을 민주당에 상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경호 의원도 전날 한 방송에서 “(중진을 컷오프 하면) 앞으로 누가 옴을 던져서 당을 위해 헌신하고, 상대 당과 부당한 일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죽을 각오로 하겠다”라고 꼬집었다.

반발이 커지자 결국 대구 지역구의 의원들이 이날 장동혁 대표를 면담했다.

공관위는 당 안팎의 분위기를 살핀 뒤 대구시장 공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은 이번주에 하기 힘든가”라는 질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서예진 기자

## 與 국토위·국토부, 9·7대책 후속입법 속도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전 처리 강조  
“野와 협의해 상임위·소위 우선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통해 9·7대책 후속입법 등의 속도감 있는 처리에 뜻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회복 보장 및 선지급 후 정산 보호장치 마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건설 현장 공정한 대금 지급 보장 ▲지역주택조합 및 빈건축물 문제 등 현안을 거론하며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산적했다”고 했다.

그는 이들 현안에 대해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며 “남은 기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했다. 이어 “입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 목표가 아니고 실제 착공과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 공공정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

업 관리법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 및 1·29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입법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소위 상임위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위원장으로) 제 임기가 길어야 두 달”이라며 “그 안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번 국회 상임위원들의 책무다. 가능한 이번 임기 내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 ‘환율안정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을 개정한 취지는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결제(RIA)

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오는 5월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 감면된다.

개인투자자의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